

11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연준 지원책 vs 기술주 약재 [다우: 8,479.47pt + 0.43%]	25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다우지수는 상승,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책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시스코시스템즈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권으로 밀려난 뒤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
[WTI: \$50.77 -\$3.73]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음. 미국 상무부는 이날 3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 -0.3%에서 -0.5%로 하향 수정됐다고 밝혔음.
연준, 8,000억弗 모기지·소비자대출 지원책 발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주택매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총 8,0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힘. 연준은 우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부터 6,000억달러의 채권과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등을 매입하기로 했음.
美 3Q GDP -0.5%로 하향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0.5%로 하향 수정되었음.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가파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 -0.3%에서 -0.5%로 하향 수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하락폭 수준임.
20개 대도시 집값 사상 최대 하락	미국의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지난 9월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월가가 가장 신뢰하는 주택가격 지표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 & P)/케이스-섀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대 대도시의 9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7.4% 급락했음. 이는 지난 2001년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수준임.
"차이나라이프, AIG 자산인수 가능성 낮아"	멥자오이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국제부 헤드는 25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차이나라이프의 AIG 자산 인수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앞서 로이터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차이나라이프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을 포함한 AIG 사업 부문 인수를 희망한다고 보도.
"中 경기부양책 '디플레' 촉발 가능성"	25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일 미국의 금융기관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에 버금가는 5,9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 내수시장을 촉진시키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전체 자금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

제목	주요 내용
EU, 경기부양 위해 팽창재정 2년간 지속	25일 AFP에 따르면 경기부양책 초안은 27개 회원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즉시 "조율된" 팽창재정 정책을 펴며 이를 최장 2년간 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 온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뒤 2011년 재적용할 방침인.
IMF, 11월 구제금융 418억불 '역대 가장 바쁜 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제공한 자금이 418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누적된 자금 규모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IMF는 우크라이나(164억 달러), 헝가리(157억 달러), 아이슬란드(21억 달러), 파키스탄(76억 달러) 등에 자금 제공을 최종 승인. 또 세르비아 터키 벨라루스 등은 IMF의 자금 수혈이 임박한 상태.
OECD "韓 내년 경제성장률 2.7%"	OECD는 韓 경제성장률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 6월 전망시 韓은 올해 4.3%, 내년 5% 성장을 예상했지만 세계금융 위기와 상품 가격 급등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 성장률을 2.3% 하향조정함.
금융위원장 "은행 BIS 기준 낮출 계획없다"	최근 BIS비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BIS비율을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힘.
현대차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가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현대자동차도 다음달부터 울산, 아산공장에서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감.
제조업 업황전망 사상 최악	금융위기가 글로벌 디플레이션 공포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업황 전망은 사상 최악을 기록함.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의 비관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